

하나님의 신실하심 (로마서 3:1-8)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3:4a)

이 문단에서 바울은 마치 법정에서 논쟁하듯이, 하나의 가상적인 적대자와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적 특권에 대해 일련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특권 의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나?”(3:1). 이는 앞선 2:25-29에서 언급한 바, 외적인 율법 준수가 참된 유대인 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이다.

바울은 2절에서 “범사에 많다”고 하며,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가 맡겨졌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그들이 받은 특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특권이 구원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이후 9-20절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질문은 3절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반론과 연결되며, 이후 로마서 9-10장에서 더욱 심도 있게 해명된다. 설교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신앙의 외적 형식에만 안주하려는 이들에게 깊은 자기 성찰을 요청하는 대목이다. 바울은 단지 유대인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종교적 자만과 허상을 지적하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3-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반역적인지를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으며, 그분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고 악용하려는 이들의 반론을 소개한다. 그들은 바울의 칭의론이 불려올 결론을 미리 예상하고, 교묘하게 공격한다. “만일 인간의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5절) “우리의 거짓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심을 부각시킨다면, 그런 인간을 왜 정죄하는가?” (7절)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악을 행하자.” (8절)

이것은 바울의 복음을 철저히 오해한 것이다.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고의적 왜곡이다. 은혜를 핑계로 죄를 합리화하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마땅히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며 날카롭게 거절한다. 그들의 논리는 일시적으로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훼손하는 위험한 잘못이다.

설교자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본다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자기 유익대로 비틀려는 자아 중심적 신앙을 향한 바울의 경고로 들을 수 있다.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죄의 변

명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은혜 앞에서 더 깊은 회개와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 애쓴다.